朝鮮日報

朝刊 朝夕刊合八面

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 進

朝鮮日報社 [illegible]

社說

生産制限과 朝鮮米

一

日本內에잇서 米生産制限이란 結局補償減段과가튼 積極策을取치못하는同時 何等의큰效果를나타내지못할것이 明瞭커니와 그代價로써朝鮮과台灣에對하야는 어떠한要求를提出하겟느냐가 우리의커다란關心事다 甚하면日本內를除外로오즉 朝鮮台灣에向해서만 生産制限을 要求치나 안할는지적어도日本內에는形式만의制限으로耳目을掩蔽코 朝鮮台灣에對해서만强硬한制限을要求치나안할가 農拓兩省主催의米穀協議會는 우리로하야금지금부터 만흔疑訝와威脅을 늣기게하지아니치못한다 本來朝鮮에잇서서 産米增殖計劃을樹立하고着手한것도 朝鮮獨自의發展만을標準햇든것은 勿論아니다 當局者의說明으로써보더래도 日本內人口食糧問題解決에 資하는바이크다고말한다 그러나大正十五年으로부터 十四個年計劃의産米增殖은 아즉도아프로六年의豫定期間을 남기어노코다시生産制限의實施아래 中止를미지못하게되얏다 朝鮮에잇서 總督政治의金看板으로 오르나리든 産米增殖計劃은 채다完成도되기以前에 벌서撤毁의運命을直面코잇다

二

東拓 殖銀의高利와杜撰의設計아래 尨大한組合費는 地主와農民에게對해서 다가치有害언無益이다缺損額을스스로負擔코組合設置의中止를 懇願하는地方까지잇는터니 차라리그러한産米增殖計劃은 中止를歡迎해조타 그러나그것은 오즉總督府産米增殖計劃의 遂行方針이恒常地主 나農民의 利害와不一致됨으로써요 決코産米增殖그自體를反對함으로써가아니다 前日우리가 産米增殖計劃으로말미아마 만흔말을되푸리해온것도 究竟그要點으로보면 이와가튼態度에 버서나지안한다 그러나지금에잇서 米生産制限의實施로써 産米增殖은全然拒否되려하지안는가? 이것이朝鮮農村에向하야 얼마만한影響을 씨치게될것인가? 朝鮮의農業은 아즉도幼稚한發展을가지는만큼 그의改良과校正으로써今後의增殖은 相當한數量에이를것이事實이나 이제米生産制限이라는이름아래 農業의發達조차阻止되지아니치못할것이다

三

朝鮮米의生産制限으로써 日本內米市場의米價가얼마나昂騰되고 거기딸아朝鮮의農村이얼마나利益을엇게될는지는 모르지만 朝鮮의農民은 위선巨大한犧牲을 提供하게된다 日本內米市場에잇서 朝鮮米의影響이란 그얼마나移出되느냐에잇고 그얼마나生産되느냐에잇지안타 그럼으로朝鮮米의生産增加는 다시日本內移出增加로나타나서만 日本米에對한壓迫을加重하는것이다 그러나그論理를 뒤집어서 朝鮮米의生産制限이곳 日本內의移出減少를意味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오즉皮相的觀察이니 조금이라도 實際事情을드려다보는사람이라면 否認하게될것이다 朝鮮農村은米와다른穀物의價格差가잇는限 米를말거되는것으로 日本內 移出의增減이 全然米生産의 多寡에依치안는다는것은 아니라도 그보다도 더만히 그價格差의廣狹에依한다 朝鮮米의生産制限만을가지고 日本內米市場에잇서 그影響을緩和하려는것은 한갓愚見이아니라면 揣摩임에틀림이업다 朝鮮農民은 臺灣米와日本麥을사서 먹더라도 米를賣却할것이요 中産以下의多數民衆도高價의 米보다究竟低廉한臺灣米나 日本麥으로써食糧을 삼을것이즉 朝鮮米의日本內移出은 如前히 行해질것이事實이다 그러니까 朝鮮米의生産制限이 오즉 朝鮮農業의發展을 阻害함은 잇슬지언정政府에서 企하는바 米價維持에 무슨利益을 줄수잇겟는가? 그러나 여긔서다시 朝鮮米의日本內 移入禁止乃至制限이 論議될것이다 비록今番米穀協議會에서는 問題되지안는다고하더라도 日本內地主와米穀商의 叫號아래 今後언제든지問題될可能性을가지고잇다

四

移入禁止乃至制限은 朝鮮米의 致命傷이니 그야말로 朝鮮米의 前途는 갈쏘록 더욱더큰難關만이기다리고잇다 우리는 今番生産制限에잇서도 적지안한 疑訝와威脅을늣기지만 今後그推移에잇서서도더한層 警戒를게을리못할배다 그러나 今番米穀協議會에對하야 總督府當局者는 白紙的態度로써 臨할것을 聲明한다 本來總督府로서는在來로부터 朝鮮米問題에잇서 獨自的政策을 가지지못하얏든것이니 이제새삼스러히 獨自的政策을要求하는것은 어리석은일이다 그러나 그얼마나無責任한일이랴?

不侵條約調印次 「에리오」氏蘇聯訪問

途中「쌀칸」서「로칼노」條約修正

佛蘇關係漸近說

【巴里發】 佛國前總理大臣「에리오」氏는去三日巴里를出發하야土耳其를經由하야莫斯科로向하엿는데目的에對하야新聞記者에게個人의資格으로蘇聯狀況을視察하기爲함이라하나일즉이말이잇든 蘇佛不侵略條約에調印하려가는것으로 觀測되며一般은 매우注目하고잇다하며 또途中에『발칸』諸國을거처게되엿다는데『발칸』諸國에서는『로칼노』條約을修正할目的이라고傳하야『에』氏이번旅行의使命은 內容에잇서서 매우重大視되다이로서 最近佛蘇兩國間關係가 漸次密接化되는것으로觀測된다

愛蘭國情騷然

靑『샤츠』團과 共和軍이對峙

將次展開를重大視

【倫敦發】 愛蘭은目下內亂狀態에싸저首都인『더브린』은 一九二二年 以來初有의 不安狀態를 呈하고잇다고 傳하는데 愛蘭에는 正規軍外에 愛蘭共和軍과 十年間警察의全權을掌握하고잇든 有力한『오드휘』將軍이새로結成한 靑『샤츠』파시스트단라는 不正規軍이存在하는바 十三日全國靑『샤츠』團은『더부린』서 一大示威運動을決行하기로되엿다 過日『데-발레라』首相이 가젓든晩餐會에서 火災가이러나는等 其他危險한事態가만흠을늣긴 政府에서는 一切의制服行列을禁止하야 行進參加者는 各個人에게 許可願을提出하도록 命令하는一方 새로히 陸相『에켄』氏 統率下『케、페우』라고할만한 武裝한政治特務警察隊를組織하야 愛蘭共和軍에 屬하는者中에서優秀한者를 選拔하야 이미그數가三百六十名에 達하는데이들을政府議會의建物內外에 配置하야嚴重한警戒網을 펴고잇다 다시靑『샤츠』側에서는 政府의武器提出命令에 從服하지안흠으로 一層不安을늣기고잇는바 『데발레라』首相이 右特務警察隊를 主로하야愛蘭共和軍中에서擢拔한것은『알스터』를包含한全愛蘭 三十六州를組成하야愛蘭共和國을 建設하려는것이나라고도觀測되며 議會閉會後의展開는자못注目된다

無所任大臣問題

俄然急轉回形勢

首相과鈴木氏會見來週中實現

少壯派는拒絶을進言

【聯合東京十日發】 無任所大臣問題는 政府에서不可不明年度豫算編成着手前에 實現하여야하겟다고 準備를急히서둘고잇는關係로 齋藤首相의鈴木政友會總裁訪問은 意外에急速히될것으로 觀測되게되엿는데十日早朝 鳩山文相이四谷私邸로齋藤首相을 訪問하고懇談한結果俄然問題는 急轉回하야느저도來週中에는 齋藤首相鈴木總裁의會見이 行할모양이다

【電通東京十日發】 鳩山文相은十日午前八時四谷私邸에齋藤首相을訪問한것은既報한바와갓거니와右會見으로서鳩山文相은無任所大臣問題에關한政友會內部의空氣好轉이되고政府는政友會의重要政策을理解하고이것을敢容實施할誠意를가지고잇스면鈴木總裁나反對派에서나또한諒解하야 鈴木總裁入閣의面目도서며 圓滿히解決되리라고하며黨內의情勢를 詳述하고齋藤首相의意嚮을聽取하엿다 齋藤首相도『政友會의 政策을決코輕視하는것은아니고國家의 大局으로誠意로서 이것을實施할것을 주저하지안으나이긔회에 政友民政兩黨總裁入閣하여名實가추운擧國一致의政府가되도록하여內政의 困難되는問題를圓滿히處理解決하고십다』고 希望하엿다

【電通東京十日發】 政友會少壯派 岡本一己、森昇三郎、中野勇次郎、篠原義政、宮崎一諸氏는十日午後三時東京驛을發하야陽谷原에 避暑中인鈴木總裁를訪問하고 無任所大臣問題에對하야黨內의歡論이나 政府의議會打開策에迷惑되지말고 黨의威信과 面目上釐者總裁가裁斷을내린本旨와 그後에次總裁談으로際明한趣旨대로 斷乎入閣問題를 一蹴하고旣定方針에邁進하여주기를바란다고激勵한바잇섯다

鈴木總裁 秘策考究中

十二日夕納涼會開催

【聯合東京十日發】 鈴木總裁는微妙한政局에關한黨의方針에對하야 目下湯河原에서愼重히考慮하고잇는中인데 來十二日午後六時부터柳橋柳光亭에서黨의長老卽 岡崎望月床次三氏를爲始하야 出身各閣僚及秋田議長高田總務山口幹事長小久保管原鵜澤諸氏를招待하야 納涼會를 開催하기로되엿는데當日은柄無任所大臣問題政黨獨立問題에對하야서도 相當히意見을交換할것으로注目된다

英商相의書翰에 回答手交

松平大使거처

【聯合倫敦九日發】 松平駐英大使는九日英商務省을訪問하야日印會議의手續問題에對하야協議하고『란시만』商相의對日回答에對한日本政府의回答을手交하얏다目下商務省에서協議中인 事手續에關한諸點은다시『란시만』商相으로부터書翰으로써松平大使에通達하리라는데英商務省에서는準備를急히하고잇다

獨領事折衝으로 墺獨關係遂緩和

【電通윈九日發】 墺獨國境의『쿠후슈타인』에서『나치스』黨員의墺太利警官射殺事件에端을發한紛爭事件은 九日墺太利政府의折衝經過發表에依하야 一旦緩和되엿다 卽『인스브룩』駐在獨逸領事는『쿠후슈타인』監理官을訪問하야 獨逸은『쿠후슈타인』事件의解決에全力을다하야 將來墺獨國境에서의紛爭을防止하기爲하야 墺太利와共同하기를確約하얏다

米國課稅問題에 日本側은樂觀

紐育生絲調査所報告

【電通東京十日發】 農林省蠶絲局發表、八月九日『뉴욕』海外生絲市場調査事務所發十日着報에依하면 競爭品에對한課稅問題에對하야八日까지에絹業家側에서提出한書面에依하면絹에對하여서는말할수업고『레이욘』에對하여서도 稅額八仙四厘를最高四仙二厘로 變更한外『레이욘』全體를競爭品으로 認定하는點을『데닐』以上의것만으로改正하엿다고한는데 其主張은業者聽聞會時 口頭로陳述한것보담一層弱한모양이다 目下絹業協會係員은 華盛頓에滯在하야情勢監視中이나 絹業側은一般으로樂觀的意見을 가지고잇다

文相首相訪問

豫算問題로

【聯合東京十日發】 鳩山文相은十日午前八時四谷私邸로齋藤首相을訪問하고 四十分間明年度文部省豫算에對하야 說明하고特히青年訓練所擴充二百七十萬圓 實業補習敎育費 三百七十萬圓은 刻下의國情에鑑하야가장 必要하다고認定됨으로이의實現에對하야 特히考慮하여주기를바란다고陳述하고四十分에辭去한後 卽時虎之門文部省新廳舍로初登廳하엿는데文相은 大臣室에서如左히말하엿다 今日首相을訪問한것은 青年訓練所費及補習敎育費問題에對하야 이야기하엿다 實業補習敎育은非常時局에一般青年에對하야 滿洲國의國情經濟財政問題及農村更生問題等이重要視되게되엿슴으로 이方面의敎育을充實히하기爲하야不可不必要한것이다 또青年訓練所는 遂年漸次充實하여가는바이此際 一層充實徹底할 必要가잇슴으로文部省으로서는不可不이의實現에努力할생각이며 또今日會見에서는無任所大臣問題에는一言抵觸치안엇다

米國이墨西哥에 海軍根據地設置

兩國間에交涉進行中

【聯合東京十日發】 米國의海軍充實計劃에 對하야서도各方面에서 多大한注意를가지고보고잇는바 十日某所着電에依하면米國政府는 今番 墨西哥의『로-아-가리포니아』某處에海軍根據地를設置하기로되야右交涉이目下當着進行中이라한다

無所任大臣問題 曲折難免

民政黨內에도反對意見

【電通東京十日發】 鈴木政友會總裁의無任所大臣入閣問題에對하야서는 政府對政友會의政策協定이先決條件이라고 傳하는바 이에對하야民政黨에서는幹部間에相當히强硬한反對意見이잇다 卽 政府는鈴木總裁를入閣시키기爲하야 다만政友會의 政策을容納하야 政策協定을한다면 이에따라發生할 若槻總裁의入閣時에도 民政黨과政策協定을할用意가잇는가 또政府가兩派를個別的으로政策協定을하야도 根本的으로相異한것이잇슴으로 미리政民兩派間의政策協定을遂行한後가아니면 도리어滋味업는結果를招來할念慮가잇다 따라서兩黨總裁가無任相으로齋藤內閣을强化擴大하기爲하야 入閣하면無條件으로하든가 或은이에압서政民兩黨間에政策協定을遂行하여가지고나감必要가잇다는것으로松田幹事長等도無任相問題는아직現內閣의對內策과아울러政友會自身의對內策을 爲하야 宜傳運動을나스지아니한모양임으로 但今後具體化되여도이의實現에關하여서는各方面에難色이잇서서 今後相當한曲折을不免할것으로觀測된다

重大使命띄우고 張公權不遠渡日

浙江財閥의對日態度가注目處

【聯合上海十日發】 宋子文의歸國을 目前에압두고浙江財閥이如何한對日態度에 나슬가는가장注目되는바 俄然目下天津滯在中의 中國銀行總裁로宋子文의右腕이라稱하는 張公權이不遠渡日하기로 決定하엿다本人은靜養次라고稱하나 時節이時節인만큼 張公權의渡日은重大한政治的使命을 가진것으로觀測된다

汪蔣招電에 馮玉祥不應

宋軍、馮氏代表와會見

【電通北平十日發】 宋哲元軍의一部는 九日張家口로드러가馮玉祥代表와會見하고 察哈爾軍政兩權을 馮으로부터引繼하엿다蔣介石과 汪精衛는馮에게對하야『卽日南京으로와서國家의大計를協議하기를바란다』고電報하엿스나 馮은勿論南下할意思가업고下野後라도漫然히張家口間을往復하며宋哲元의後援을할意向인듯하며 又方振武는邊防督辦으로서蒙古로더갈

老蒙子軍

黑山附近에密集

【電通奉天十日發】 服部部隊는七日來遼南地方의反軍討伐次出動中이든바九日午後二時頃咸康鋪東北方十五粁喇嘛塔附近에서迫擊砲及機關銃을가진老蒙子反軍의一部約五百部隊와衝突하엿는데山崎枝隊는二時間동안交戰한結果드듸어黑山方面으로潰走시켯슴으로山崎枝隊는이것을繼續追擊中이다또黑山附近에는天險을利用하야老蒙子軍이密集하고잇는모양이며山崎枝隊와協力하야海老子枝隊도同軍剿討을包圍하고잇다

南京政府에서 電信機關擴充

抗日目的코工場設置

【聯合東京十日發】 某所着電에依하면 南京政府는上海의浦東에交通部直屬의電信器機廠을設置하기로되야 資本金四百萬元으로工場을三個所에 設置할豫定인바右工場에서는 一、電信機械 二、無電機械 三、電池製造를行할터이며右資本金은英國으로부터借款하기로되엿는바이電信機關擴充은抗日할目的으로觀測된다

三角地帶의 反軍分布狀況

【安東發】 三角地反軍에對한日滿兩軍의討伐은 그後着着進捗되는바 아직險峻한山岳地帶에蟠居하는 反軍의分布狀況은大梗房及大房身附近에 李春潤軍 燒鍋堡子附近에李子榮과湯較의聯合軍 正燚旗堡子附近에鄧鐵梅軍 大贊子附近에鄧軍等으로 相當努力을擁하고잇서日滿兩軍은不遠徹底히剿滅하기로되엿다

【時事漫畫】 잠은깨니(?) 滿身瘡痍！新興中國의勇姿！ 金華 畵

權利留保以上으로 新島는海軍서占領?

先占宣言안은二十島가尙在

南中諸島問題去益擴大

【電通東京九日發】 佛國政府가先占의宣言을한 南中國海의六島嶼는 일즉이日本라사島燐鑛株式會社가이를 發見하고燐鑛採取에從事하고잇든 九島嶼中의六島嶼인事實이 佛國外務當局에對하야 取調한結果判明되엿슴으로 外務當局은佛政府의한先占宣言에對하야 重大한權利留保를通告하는 外交的處置를 講하는以外에다시나아가南中國海에서 日本人이發見하고 아즉어느나라도先占宣佈의手續을 하지안은二十島에對하야 速히海軍當局에서 右島嶼에對하야 實効잇는占領에着手함에잇서서는 外務當局으로서는 나아가外交的處置를取하는意向이잇는듯을明白히하얏다

二十四軍擊滅次 劉湘軍進擊開始

岷江一帶에戰爭再發

【漢口發】 成都將領會議를압서 劉湘은二十四軍을剿滅코자 夏仲實 林雲根 陳鴻文 冷寅東 張淸平 鄧和等으로하여금 六路로進擊을開始시켜이에去三日부터 岷江一帶에戰端이再發되엿다

鳩山文相訪問 山口幹事長

【電通東京十日發】 無任所大臣問題에關하야 鳩山文相의齋藤首相訪問은政局今後의 歸趨에多大한影響을 齎來할것으로重視되는바政友會 山口幹事長은十日午前十一時官邸로 鳩山文相을訪問하고 會見한結果를聽取하고다시黨의 情勢를報告하고辭去하엿다

滿洲官警六名을 共軍射殺

【電通間島十日發】 十日午前七時大拉子에서南滿關內東京台에赴任하는滿洲國巡官六名은大拉子南方二粁地點을通過할時約二十名의共産軍을遭遇하야全部射殺되엿다 右急報로日滿軍警은協力하야出動追擊中이다

馬占山後援金 十分之九는失踪

◇調査次檢査委員會組織

【上海發】 馬占山이北滿에서抗日戰을開始하얏슬때에 南京上海를中心으로 全中國에서는馬氏의後援을標榜하여가지고各地에서 巨額의義捐金을聚集한다함은 當時에報導된바이어니와 最近馬占山이 獨逸로부터中國에歸來한以來로 該義捐金二千萬元의 行方에對하야種種의風說이流行하게되엿슴으로馬氏는 八月一日에自己가北滿에서 受取한義捐金의決算을正式으로 發表하얏는바그總額이一百七十一萬三千八百廿四元六十七錢六厘라고하야 一般에一大『센세순』을 이르키고잇다 이에對하야 中國各新聞紙는各機關이聯合하야 一大檢查委員會를 組織하야 義捐金의十分之九의行方을밝힐것을 主唱하고잇다

『아』印度立法議員 英調査委員과會見

棉花取引에關하야協議

【倫敦九日發】 印度立法議會議員『아놀드스리아』氏는英棉業調査委員等과會見하고印度棉花栽培業者와英國棉業者와의取引交涉에서今後는工業者인紡績業者보다도農業者인棉花栽培業者에게充分한發言權을주기를바란다고力說하엿다 會見後『아놀드스리아』氏는 如左히말하엿다 余는『랑카샤』紡績業者及印度棉花栽培業者相互의 利益은勿論一般當業者의利益을爲하야一致協力할目的으로될수잇는限多數의紡績業者와會見할생각이다

齋相과懇談 鳩山文相

【電通東京十日發】 鳩山文相은十日午前八時齋藤首相을訪問하고無任所大臣問題에對하야懇談하엿다

人事·集會

▲高橋敏(全北警察部長)赴任人事次來社

夕刊後의市況

大阪短期最終氣配

大新 一〇九八〇 (二〇低)
鐘新 一〇八〇〇 (二〇高)
日産 八二〇〇
東新 一九〇一〇 (六〇低)

橫濱生系

當 八六〇引
先 八五一

滿洲가는길에 (四)

統軍亭上痛哭聲

契丹當時右亭이此處인가

特派員 金 炯 元

○滿洲와朝鮮사람의넷날關係에對하야는 以上二回로써大槪는말하엿다할수잇다。그러나、나는新義州를지나면서義州、더욱이統軍亭을아니차즐수가업다。滿洲가는길로는 暫時빗길이될는지는모르나、統軍亭을차즘으로因하야 좀더歷史的무슨材料를 어들는지도모르겟다는 期待를가진外計이다 新義州에서 自働車를타면四十分乃至五十分에義州邑內에到着한다。나는到着卽時마자주신我社의前役K氏의案內로 邑뒤三角北西麓에屹立한統軍亭에오르게되얏다。只今내가보는亭子는距今百餘年前에重建한建物로서 建築으로는그다지去傑하다고할수는업다 그러나 亭下를나려다보면 거칠닌絶壁이 멧十丈이나되는지、그아래흐르는 鴨綠江水의急流와아울너 統軍亭이라는武士的名稱에相符할만치要害地의地形을 俱備하고잇다。西으로 對岸에는中國말로猴山、日本말로虎山、朝鮮말로馬耳山의세가지이름을가진小山이보이니、이山이야말로日露戰爭때 大山大將의部隊가決死的으로넘어들어가險地라고한다、南으로바라보면鴨綠江에따라 마음껏터진平野가 丈夫의가슴을시원케한다

○그런데、統軍亭은大體어느때누구가지엇는가。이點에對하야는史上記錄이 別로업고따라서 史家들도確實한立論을하는이가적은모양이다。마츰여기에對하야平日부터硏究가깁흔P氏의말에依하면『契丹이對岸九連城에左亭을짓고當州城(지금義州)에右亭을지엇스며 統軍亭을두엇다는記錄이잇슨즉、右亭에統軍이노든까닭에 百姓이놀너서 統軍亭이라고한것이나아닌가』한다고한다。이말을듯고보면 果然그러할듯도하다。그러면 契丹때에는 當州서지뮛켯든것도事實일는지모르는일이오、이와가티國境이 鴨水를넘어서 들숙날숙하는동안에 種族의피조차 서로석기가 고만잇슬것이다。

○이와가티 起源이 오랜統軍亭이매 그동안무슨亂을 몃번이나겪것는지, 알수업거니와 우리의記憶에 가장뚜렷한것은 宣祖行鑾의一事이다。朝廷에賢臣이업고 外敵의追及이急하매 一國의大王으로서 宮闕을뷔어노코 千里遠征을跋涉하사 北邊의戍地를차자半年以上을駐蹕하실때 그心情이엇더하섯슬가。王이一日은統軍亭에올나 徘徊하시다가 國事의日非함을痛恨하사 痛哭하신일이 잇섯스니 그後로巷間에서는 통군정을돌곡정이라고부르기도한다 또當時王의心境을뵈인一句가지금도傳하는바잇스니

傷心舘山月 凄凉鴨水風
朝臣今以後 寧復各西東

이라고하시엇다 얼마나當時의色黨을원망하고미워하신것을짐작할수가잇지안혼가 생각이이에밋치매 나도몰득이려한배何하나를읍헛다

통군정 우신님이
돌곡정 지으섯네
사백년 지난오늘
어린길손 또와우네
지금에 사색잡놈들
어느구석 썩는고

(統軍亭에서)

赤色『華東』共和國
露滿國境에建設運動
舊吉林、黑龍江軍等이合作活動
年號까지도布令

【奉天】 당지모처에 도착된정보에의하면 『싸베트』로서아의적화운동에회유(懷柔) 되엿든흑룡강성(黑龍江省) 길림성(吉林省)의로、만국경(露、滿)부근동부산중에 잇는항일군 (抗日軍)밋구길、흑군 (舊吉黑軍)은최근에화동공화국(華東共和國)을 건설하고자 비밀리에운동을 진행하야이미 화동공화국원년(元年)의 년호를포고하고긔관지(機關紙)『화동정보』(華東政報)를발행하고잇스며 정치조직으로『싸베트』로서아식위원제로하야립법위원(立法委員)륙군부장(陸軍部長)국대군장 (國隊軍長)외교부장(外交部長)기타국방、강방(國防、江防) 각군장을임명하야이것을공포하는동시에대규모의정치운동을진행하고잇는중인데그장래는자못주목되는바이라하다

合併記念日期하야
日滿大官暗殺企圖
唐聚五鄧鐵梅等과合作하야
國民府員의再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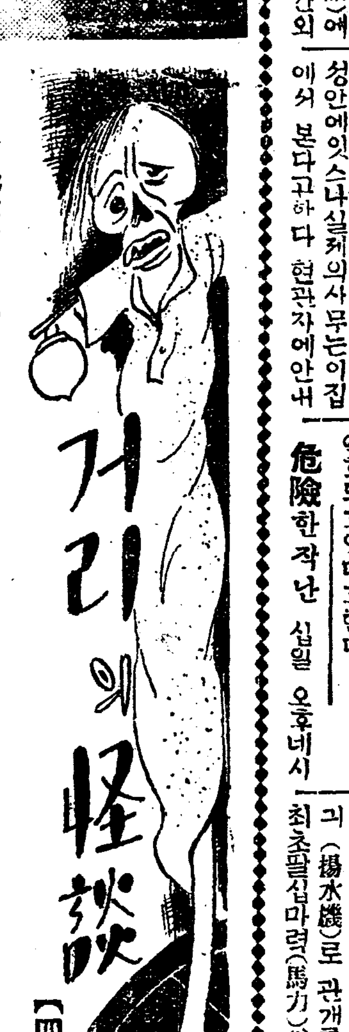
【奉天】 본부를 완전(綏甸)에둔 국민부혁명군(國民府)는 작년에 당취오(唐聚五)와 제휴하야 반일 반만(反日反滿)행동을 해오든중 또리춘륜(李春潤)과 통하고 등철매(鄧鐵梅)와합작하야 오는이십구일의 일한합병긔렴일(日韓合倂日)을긔회하야 동변도(京邊道)각지에 잇는 일만대관과조선인민회(民會)역원의 암살을 계획하고잇다한다

滿洲國外交總長謝介石氏에게
國籍問題를對質
『思想如何보아保護與否決定』

滿洲視察特派記者 金炯元 發電

【十日新京에서】 나는 (특파원)금일(십일) 오전열시 일행과갓치집정부(執政府)에이르러승광문(承光門)문압에서부의(溥儀)집정(執政)을면회하엿다 그후나는 혼자서 부속지(附屬地)내욱정(旭町)사공관(舍公館)에서열한시사십분부터십오분간외교총장(外交總長)사개석 (謝介石) 을면회하게되엿다외교부는청안에잇스나실제의사무는이집에서 본다고하다 현관자에안내로이층에 올나간즉 종로랑하에각사(各司)에패가부터서관청과갓해섯다 맨구석에차장실(次長室)과총장실이 가즈런히잇섯다 응접실에서안내를맛는것인가고생각하엿드니 비서(秘書)신전(神田)군은직접총장실로안내하여주엇다 방안에들어서니 사총장은 익숙한친지를대하는듯이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하면자리를권한다 나는몬저 시간의약속이 잇섯슴으로 니어만주에는백만명의조선사람이잇는데여려가지로폐를만히끼치어서대단히미안하다고 인사를한후 이백만명에대한 만주국의 정책이엇더하냐고 물엇다 이에대하야사총장은만주국은아시다십히오족평등(五族平等)임으로별로히조선인이라든가일본인이라든가하야구별할필요가업다고본다그보다자못 구정권(舊政權)은 의식적으로 조선인을압박하고 조선인도일부는 일본의세력을 빙자하야여러가지 문제를 이르켯스나 지금은그러한일은 절대로업스니조선인은 안심하고 만주로오는것이 조타고본다 나는다시아무리 오족평등이라고 하지만은 국적법이실행되지안는 현상으로써는 조선인은 특수한고통을 당하고잇다하니 귀하의의견은?하고물엇다 그는 국적법은엇더케 발포하게될는지 아직알수업스나 지금이라도 사상적으로 조치못한일을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다!동일하게보호함으로 큰실할필요가 업다고한다 나는최후로 사총장의자서(自署)를엇은후공관을나왓다



郡廳移轉問題逐惡化
四十餘名이斷食코騷動
長淵郡廳뜰에서

【長淵支局十日電話】 장연군청을 현소재지안읍내로부터 장단역전으로 이전을 시킨다는도당국의 계획을반대하야 이러난군청이전반대 장단읍 주민회는그동안 수차대표를 선발하야총독부를 필두로경긔도등 각관계당국을 방문하며맹렬한 반대운동을 계속중이라함은 본보에루차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동회에서는요지음 또다시대표를 보내여 각방면으로최후의운동을 게속중이든바 지난팔일 진정차로상경하엿든 대표들이 도라왓슴으로 오후일곱시경에 군청뜰에서대회를열고 교섭경과를 보고하엿든바 대표측으로부터 총독부와 밋도당국에서는 이미결정한방침이라하야 엇지할 도리가 업다고한즉 우리들도 할수업시 본회를 해산할것밧게업다고비장한 연설이 잇섯든바 모여들엇든 일천여명의 군중은크게흥분되여 도라가지안코잇는것을금일오전세시경경찰이출동하야간신히해산을식혓는바아직도그중사십여명은 군청을점령해 거적을깔고 단식을 계속하며잇다는데 일반주민들의 인심은 자못악화되고잇다고한다

危險한작난

십일 오후네시반경에 시내가회동(嘉會洞)일백구십번지 허만구(許萬龜)의장남일구 (壬九)(三)는재동(齋洞) 이십삼번지압길바닥에서놀든중 마춤지나가는 자동차뒤에매여달려 약십청이나 그대로가다가여러저 이마에타박상을당하고니빨이 부러저 치료일주간의상처를 넘엇는데 어린이가진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이와가튼작란을 특별히주의 식힐일이라고한다

擬砲音罐炸裂
廿三名이負傷

【電通橫濱九日至急電話】 구일오후두시반경에횡빈시중구이세긔정 (橫濱市中區伊勢崎町) 사정목일번지압에서 방호단(防護團)이세긔분단(分團)이 방공연습(防空演習)을하든중방공단본부로부터 배부된의포음관(擬砲音罐)에불을부치든바 뢰성가튼 큰소리와가치 폭발되엿는데그폭파된 쪼각에 방호단원인긘횡빈시회의원상보경삼랑 (上保慶三郞)씨외여섯명과 통행인세명은모다중、경상을입엇고 또그와동시각에두시사십분에이세긔정사정목 방하오복점(芳賀吳服店)압에서도역시 의포음관이폭발되어방호단원관수장태랑(關水長太郞)씨외 열다섯명이모다부상하얏다

豫定面積의半數도
灌漑不能의粗設計
監督當局이損害賠償하라고
伊川水組代表入京陳情

금년부터 개답(開畓)케된 강원도이천(伊川)수리조합구역내의 시설이 불완전하야 지주들이뜻밧게손해를 넘게되엿스니 감독관청으로서 책임을지고 손해를 배상하여달라고 지주대표 송규환(宋奎煥)씨외 두명이 십일총독부에진정과 수리당국자를 방문하엿다 내용은 동수리조합케이구역 일백오십륙정보는 양수긔 (揚水機)로 관개를하게되여 최초팔십마력(馬力)의긔계를사용하려든 설계이든것은 총독부에서는 칠십마력이면 된다고설계서를고치어 그대로 공사를완성하야 금년에그일부 칠십여정보만 개답하엿더니 그토지는사지(砂地)가되여그절반도물을대이지못하엿다 그때문에 금년농사도 거의 전패될상태이거니와 불충분한 조사로 설계한때문에 양수긔계 설비에대한 일만오십원의 손해를보앗스니 이손해만은총독부에서 책임저야 한다는것이고 또조합당국에서는 개답초년이요 검하야긘긔와가튼 고장이만혼데 불고하고 조합비를 첫반을 내이라고하니 지주들은 도저히 내일수업다는것이다 수리과에서는 곳 도당국에 조사를 명할터이라한다

醮禮廳에新婦는
現夢하든怪妖女
妖婦의『방자질』로三族이盡滅
桂洞홍수랫골由來

아는이는 알리라 바로 재동(齋洞)에서 계동(桂洞)으로넘어가는길을 『홍수래골』이라 하는데 그유래는 거금 이백오륙십년전 홍술해(洪述海)라고하야 당시의학자요 정치가이든 소위량반이살든곳이래서 일홈이 붓기는 하엿스나 그러나 『홍술해골』이란 동리일홈이 후세에까지 남기에는 음험하고 참혹한소위 귀신부든 전설이흐[illegible]이다

◇

바로 영조(英祖)때이다 홍술해의 아버지되는 계희(啓禧)는 홍문학한학자로 정승벼슬을 지내든이로 나는새라도 떨어칠만한 세도를하든량반이엇다 파가 케각기갈리어 서로세도싸움이 끈이는날이업서 가슴서늘[illegible]기도 하로건너큼 [illegible]감피를 둘주어가며 칼날에서서 충돌주는날을 보내는동안에 영조의 아드님이요 다음님금정종(正宗)의 부군되는 장헌세자(莊獻世子)[illegible]역모에 거두가되엇든일이 잇섯다 그러나 그세력은 그대로 배치어 그아들술해의벼[illegible] 도판서의 벼슬을하가써지햇[illegible]하지안엇섯다

아들술해가 상처하고 후처를마춤 그당시계획의 꿈에 괴상한것이 나타낫다 잠이들면 결문계집이 독긔를들고 들어와대들보를까거내리군하엿다 하로밤도 지긋지긋하거던 련칠일을두고 얼굴과복색에 조금도달음업는계집이 하루가치 꿈에나타나입가에는선ㅅ우숨을띄우고 독기로대들보를찍어내엇다아들의장가드는날을압두고불길한꿈을매일밤본다는것은넘어도불쾌하엿다 그러나생시에 생긴일이 안이고 꿈에생긴일이니 세도당당튼 계획로서도 엇절도리가업섯다 마음으로는불길한 예감이 가슴에 무득히떠올르는것이 잇섯으나 외면으로서 빠리지안을수업섯다

◇

그러고 몃출지나 아들술해의장가드는 날이왓다손님이 안파으로뒤덥히어 신부가들어 오기를 고대하고잇슬때안에들어온가마문에서선듯나선신부의얼굴을 보고시야버지되는 계희는 얼굴을찡그렷다 하도괴상한 일이안인가 련칠일동안꿈에 나타나대들보를독기로 찍어내든 그계집의얼굴과 며누리의얼굴이 조금도달으지안으니 괴상한일이 안이고무엇이랴집안사람들은수군거리엇다집안망할일생기엇다고

◇

그러나 생각과는 달렷다그 며누리가 들어오자 (며누리일홈은 효임—孝任—이라고 하엿다)집안일은 뜻밧게잘피여나갓다 그것은효임의수완이 비범하야 온갖일에처리하는법이 너자라고하기 앗가울만큼 훌륭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효임의일홈은궁중에까지 들리윗섯다 그리는동안 또해는박귀엇다 권쟁이란일날업시 홍술해의집도 음모의 굴이되여 효임이도그남편을도와 때때로술책을 꿈이여내이군하는차에 효임은 한가지무서운흉계를 하엿다 궁녀를꾀여가지고궁중에하지못할방자질을하엿섯는데 이것이 마즈막으로효임의 방자질이 발각되니술해삼족은하로 아츰에 이슬수사라저버리어든것이다

◇

이가치하여술해의집안이멸족을당하고보니 후세의 사람은계희의역모가 이가치하여 복수되엿다고전하게되엿다

홍술해골의 일홈도 세상의과억을 깁게한유래도 여기에잇다 (며목밧구인홍수랫골)

總長令息收監
宇都宮憲兵隊에

【電通東京十日發】 모대학총장의 셋재아들이횡전준웅(橫田俊雄)(二六)은 지난이월간부후보생(幹部候補生)으로야포〇〇련대(野砲〇〇聯隊)륜수대 (留守隊)에입영하여잇든바 최근우도궁(宇都宮)헌병대에인치되여목하 우도궁륙군감옥에 수용되야 엄중한취조를 밧고잇는데 동씨는학습원(學習院)을맛치고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후 명고옥사법관시보(試補)로근무하다가역시사상문제로의원면직이되엿든것이라한다

羅州署突然緊張
師弟十四名檢擧
◇高等係員總動員으로◇
農民夜學을掩襲하야

【羅州】 전남나주서 (全南羅州署)에서는최근아연 긴장하여 수차 형사대를 파견하여관내세진면 (細枝面)방면을 엄중경계중이든바 지난팔일에는 고진도 (古田島)고등계 주임이하 고등계원이총출동하야 다수 청년을 검거하여 라주서에 류치하고엄중취조중이라는바 이제 탐문한바에의하면라주군세지면죽동리 (羅州郡細枝面竹洞里)에는삼년전부터 동 리사는 라순조(羅順祚)(三)등이 농민야학을경영하지해나왓다는바 금번에 동야학이 당국의 주목을밧게된내용은 국비밀에 부칠으로 알수업스나 전긔교사 라순조가 동야학생도들에게 소위불온사상을 고취하엿다는혐의로인하며 동일에 긘거된 긔교사들은 전긔나순조와동야학생도 십삼명이라는바 그들은 목하라주서에서 엄중취조인데 일반은사건의 진전을자못 주시한다

◇女子醫講刷新

지금으로부터 여섯해전에 설립되여 조선의게 (醫界)에불소한공적을 남긴경성녀자의학강습소 (京城女子醫學講習所)는 그동안녀자의전(女子醫專)을목표로활동중이든바 이번그경영에당하고잇든 『홍』부인이 조선을떠나귀국하게되엿슴으로후의경영은설립당초부터 인연이만튼김탁원(金鐸遠)씨외 그부인길정희(吉貞姬)녀사가인계하고 새로히내용을쇄신하는동시 재단법인과부속의원도 불원에 실현할방침이라한다 사진은교사

少女轢死

팔일오후 일곱시경시내통동(通洞)일백삼십삼번지정준호(鄭俊鎬)(三)이가 치부동이번지 압길에서 자전거타기를 배우다가 치부동이번지 최영진 (崔英鎭)의딸영애(永愛)(九)를 치여중상을 넘여 곳부근광제병원 (廣濟病院)에 입원식혀응급수당을가하엿스나구일청오예죽엇다한다

白壽차저주

시내 돈의동(敦義洞)명월관 료리집의 차부로잇는 윤승렬(尹承烈)의딸 백수(白壽)(十七)는 지난초삼일 오후일곱시경에 집을나간후 아직까지 소식이망연하다는바 때가때이니만치 혹시 중국인마수에 걸려들지나 안앗나하야 우려된다고한다의복은검은치마에노랑조고리검은고무신을신엇다한다

東平水利契에
不正事件

【咸興】 함주군삼평면동평수리계(咸州郡三平面東平水利契)의개답증수금(開畓徵收金)부정소비사건에 관하야는 다년간민간에서 비난이잇서오든바 금번함흥서에서 그내사(內査)에 착수하야 동수리계장부를 일사압수하여다노코 조사하는중인데 동수리계 개답증수금 부청소비는대 청년대로부터 금일에이르기까지 계속하야왓스며 그사이에 계장과서긔등이 여러번갈리여사건은 매우착잡하게되여 잇고그관계인물도 상당히만을 모양이라고한다

本社主催 **漢江水泳講習** 十三日午後一時開講 後援 朝鮮體育會

世界重量拳鬪選手
獨逸슈메링君約婚

米國『맥스● 베아』選手와의 世界重量選手權試合에敗北한 獨逸『맥스● 슈메링』選手는 含恨의 눈물을 흘니며 歸國하엿든바最近 『체크● 스로바키아』의映畵女優『안니● 온도라』孃과의約婚을 發表하야 女性의슈메링●팬들을 失望케하엿다 同君은萬人과도 바꾸지안이할 有力한應援者를 어더 近近再次『맥스● 베아』選手에게 挑戰하게되엿다

(寫眞은슈메링夫妻)

運動競技

國境一週마라손
劉·金兩君江界通過

劉界健 金周興兩選手는 去三日寧邊을出發하여 國境을一週하는마라손의 길에나가 五日江界에 到着할豫定 이엇는데故障이 생기어別河에 머무르게되여 이通知를接한 江界마라손選手金鳳鍊· 李華松· 金龍虎의 三君은 當夜別河까지出迎키로되야 十時四十七分에江界를出發하야六日午前八時廿五分에前記三君의 歡迎選手와가티 別河를出發하야 午前十一時五十五分 江界에到着되엿스며七日은江界서休息한다음 八日午前七時五十分에다음의 豫定地인滿浦를向하야出發하엿다

長距離王누루미
離婚訴訟을當해

【電通헬싱포스九日發】 芬蘭이나은 世界長距離界의超人 누루미選手는 지난九日 그에 夫人으로부터離婚訴訟을 提起하엿다 訴訟의理由는被告 (누루미) 가 그性質調和에缺乏하야 原告(夫人)는 그에性格을 맛출수업다는것이다 누루미選手는今年三十七歲인바 妻는昨年五月에結婚한 美人이다

關學4……2平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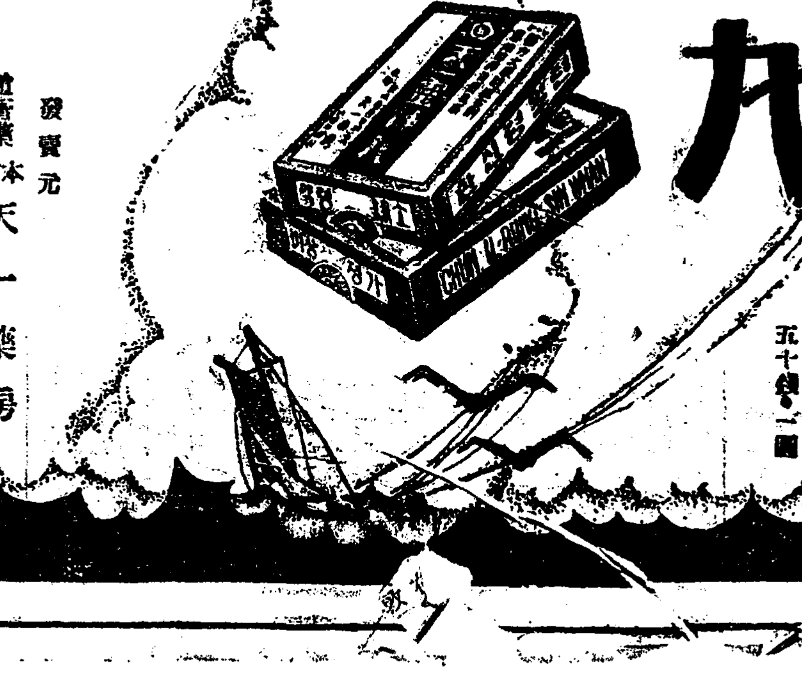
【平壤】 關西學院大學對平鐵野球戰은 八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平鐵球場에서 松島(球)審保●小西(壘)三氏審判●關西學院先攻으로 開始하여 四對二로 關西學院凱歌를올녓다 閉戰午後五時三十分

都市對抗野球
東京8…6大連
今日京城對東京決勝

都市對抗野球 準決勝東京大連戰은十日午後三時부터 東京先攻으로神宮球場에서 擧行되엿든바九回까지 五對五의同點으로延長戰에入하여 結局8對6으로東京勝하엿다

調時當備之淸凉寶藥

天一靈神丸



效能 食傷·吐瀉 暑滯·消化不良 酒滯·痰 胸痛·頭痛

(定價) 懷中用 十錢·二十錢 家庭用 五十錢·一圓

發賣元 本舖 天一藥房 京城禮智洞

時計貴金屬 金銀銅錫器 寫眞機 活動寫眞機 及材料一式

京城本町一丁目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梅毒全治注射(獨逸製) 六〇六號 一號는金一圓八十錢 六〇六號는號數의大小는잇으나品質의好不好는업스니絕對安心하시요 京城明治町 チエ京城支店

淋疾 梅毒 專門 明治町二ノ一〇三 (京城郵便局北側) (電本一三五三) チエ京城醫院

テント 京城驛前 中西テント

優美館

八月九日水曜부터特別大公開 F、N、會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마이그르가―데이스氏 따―× 全十卷 主演 라이오넬아드우일氏 助演 후에이레이 프렛드릭손氏共超特作

國境戰 全七卷 監督 데빗드가그란드 主演 프렛드릭손氏 助演 배스프레위氏

新聞 少女軍舞踏 藝題交換! 次週公開豫告 暗夜의宣戰隊、荒原에獅子吼하는女

團成社

八月十日夜開場부터 新舞臺夏期公演 第十六週藝題交換 特別料金

◆新舞臺第七回超特作品 春史脚色·羅雲奎監督 進撮影 網一唱演出 大連鎖劇、古代家庭悲劇 薔花紅蓮傳 全三幕九場 待望旣久든名篇이나왓다그누가눈물업시本篇을對할가보냐

◆石臥佛案 누가정말사위 全一幕 抱腹絕倒할大喜劇

◆幕間獨唱과樂音 秋月의獨唱

家庭

건달영웅 —눈은 헐도만든 바자마에 자, 적, 황(紫赤黃) 세빗갈의 스카-트를 입고 「스마-트」한 양자로 이는 『도-렛트·그-양』(건달영웅의 한장면)—

조선인환자들의 그심리를알수업서

의사도우리보다일본인을더신용 귀찬은위생비는주지안어도조타

본사위생고문만담회 (完)

C 그런데한가지 이상하고도 그럴듯한일이잇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일본사람은조선인병원에오고 조선사람은일본인병원으로가는 병이잇습니다 다그것은무슨병이냐하면『화류병』이나 『임신부』들입니다다

C 그것은그래요 더욱이나화류병환자는만이들 일본사람병원으로가드군이요

G 그러고 한가지딱한일이잇습데다 언제인가 어느가정에서 왕진을와달나고하기에 급히가보니 그곳에는일본인의사와 조선인의사여러사람이잇섯습니다 그래서 제각각진찰을하고나니ㅣ 자드려보십시요 진찰료도일본의사에게 봉투에다가 십원을너어주고 조선의사에게는삼원을너어주니 참그자리에서얼골이확근거리드군이요

B 그것은수조흔날입니다다 맨손들고올쌔도잇는데

C 그런나랑심괴로운일이야요 처음개업을하니 선배에게어려웁고 또한가지대외로어렵습데다 언제인가 거저왕진을와달나기에 가보앗더니 그병자는『집부데리』환자엿습니다 그래서간겁이니가 주사를노앗습니다 그쌔에커보다선배인의사가와서 또진찰을하더니 『집부데리』가안이라고합니다 참딱한노릇이드군이요

B 그런일이만히잇서요 그야말로 의사의도덕문제입니다다

E 그래서나종에는 일본의사싸지와서 진찰을하게되엿는바 진찰한일본의사는『집부데리』가확실하다고하매 그쌔에야 밋지안튼병자의집안에서도일본의사가그러니 『진부데리』가 확실하다고 이청하게되엿습니다다 이얼마나무서운노릇입니까

F 동업자의도덕문제입니다

B 거긔잇서서는입의 세상을떠난안씨가케일입니다

E 그런고한가지한 우스운일이잇섯는데 그것은언제인가 장질부사환자를보고 큰병원에서바소개한병원에서 보냅를ᆞ게되야 처음에보고를안하얏다고 말청이좋잇서면원이잇습니다(일동웃는다)하엿튼그런염명환자나 그가정에서경할에보고하는것을 여간시려하지롱안는바 만일소게하여서 원이잘못되여죽기나하면 그쌔에원망이라여간이안이야요(일동소청)

D 이것은문제가 다릅니다만은병원에서 의상이라고하는것은 어쩌녁에생각지를마려야되겟더군이요 그것을밧으라고하다가는 자긔만꿈코마니까 그럼으로 의상주는날에는 못바듬생각을하고 아주항반하는것이 피차에조흔일이야요

A B 신문사도그럿치요 별일다잇지요 배달부에말을드르면 쳐일신문갑을내지안는데가 변호사 의사들이라고합데다(일동하하하대소)

C 그런데위생비니 약경비니 하는것이엇더케되는지는 모르지만 매달내라는데는괴로워요 약경비는혹모르겟지만 위생비는멀청하게 아모것도하지를안코 내라는데는문케입데다

G ―일동그래요― 위생비는 안내여도 관계치안습니다 팬이당국을 핑계하야가지고 돈만바다가고 시민의위생을 도읍는일이잇서야지요 위생비는안내여도 뭡니다(일동웃음으로 안내도조흡니다』이쌔시겐열한점을친다

A 이제시간도느젓스니 이번만담회는 폐회하는것이 조켓습니다 (일동조습니다)

白麟濟氏

환절긔위험한……(1) 부인병과신경

먼저그원인을아라보자

産婦人科院長 許信

◇머리말◇ 대커환절긔라든지 긔후의급변으로 인하야 보통사람으로밧는 정신적영향도 막대하야 혹은 환절긔에 정신병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신경병을일으키는 폐단이 만흔것입니다 더욱이 남자보다도 비교적예민한 신경적소질이 잇는부인으로서는 말삼할 여유도업슬뿐안이라 부인적 질병이잇서서 항상 고통을밧으시는분은 피치못할현상이라고 하여도무방할것입니다 그러한리유로써 부인병과

◇신경◇에관한 이야기를 잠간말삼드리려고 하며또한성적(性的)문제와 신경은 밀접한 관계가 잇는것으로 보통동물들의교접긔에 볼수잇는추각(嗅覺)신경의발달이 커명한것가튼것은신경통(神經痛)신경통이라고 하난것은 일반적술어로 그실제의하나입니다 그럼으로 특히 이문제를 선택한것입니다

우리의권신을 지배하고잇는신경에 엇던것이 무슨원인으로인하야 자극을 밧아서 동통을 일으키는것이니 그종류로는 두통 요통 하지통 좌복통그이외에도 여러가지 동통이잇는것으로 그원인으로는 직접 엇던 부분에 질병이 그국부의 신경을압박하여 그로말미암아 발생케하는 신경통이잇스니 례하여 말삼하오면 자궁암종(子宮癌腫)갓흔 혹이잇을쌔에 그혹이 골반에 잇는 모-든 신경을 압박함으로요통 하복통 하지통갓흔것이발생되난것입니다 이와갓치

◇골반◇ 안에잇난 신경을압박하난질병으로는 자궁암종이외에도자궁근종(子宮筋腫) 자궁후경후굴(子宮後傾後屈)골반내에엇던 장긔에 염증으로생긴덩어리가 잇슬쌔 자궁(子宮)협착으로인한월경통(月經痛)란소랑종(卵巢囊腫)등이잇서서 골반에엇던 조직과 유착이되여버렷슬쌔에 더욱이 커명하게 낫하나는것입니다 둘재로는 국부에잇는 염증이 그부분에 신경을 직접으로 자극함으로인하야 생기는신경통이니 례하여 말삼하면 자궁내막염 복막(腹膜)이 염증을 일으켯슬쌔에는 그복막자신에잇는 신경이 직접 염증으로 인하야 자극을밧음으로 골반안이 무거운듯도십고 혹은 쿡쿡 쑤시기도하는것입니다

兒童漫畫 풋볼선수……權九玄

안더ㅡ센童話 성양파리少女 (一)……고긴빗 譯

살을비는듯한 몹시 추운겨울날저녁이엇습니다 그래서 이소흰눈은 내려쌓히며 사방은차차어두어왓습니다

이날은한해의 마즈막되는 섯달금음날이엇습니다

어려케춥고 어두운데 어린소년한아이 머리에는 아모것도쓰지안코맨발로길을걸엇습니다 집에서나올쌔에는 덧신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의것을 신기는하엿습니다마는 넘우도커서 악가마차두채가 빨리달려갈쌔에 그압흘 얼는지내오느라고 그것또차 버서커서 한착은 어듸로갓는지 알수가업고다른한착은 작난군아이들이 놀리면서가지고 도망하여엇습니다 그래서 이소녀는맨발로걸엇습니다 적은발은추위쌔문에 쌜앗코푸르게얼엇습니다 이소녀는 낡은행주치마자락에 성냥갑을 여러개싸고 손에도한갑을 들엇습니다 그날은 왼종일돌아단엿스나 아모도 동전한푼주느니 업섯고 성냥한갑팔아 주느니 업섯습니다 배는대단히곱흐고 치위는심하야 소녀는 벌벌썰면서 구슬픈얼굴로 길을걸엇습니다 참말로 외로운소녀의가여운신세이엇습니다

눈발은 소녀의길게느리운 누런머리카락우에 쌓이엇습니다 머리카락은 아름답게 목을덥혓습니다다만은 이소녀는 그쌔진것가튼것은

◇꿈에도◇ 생각지 귀엽게 안엇습니다

집집마다 창으로 밝은등잔불이 쌜앗케비치엇고 거리에는 곳곳마다 오리고기를 굽는냄새가 코를찔넛습니다

그날은 그믐날이엇음으로 이소녀도 그것한아만은 잇지안이하고 왼종일생각하엿습니다

가다가남의집 담아래에 발을모으고 안젓섯습니다

치위는컴컴 몸에숨여들엇습니다 오늘은왼종일 성냥한갑도 팔지못하고 동전한푼도 엇지못하야 집에돌아갈수가 업섯습니다

반손으로 집에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매를마즐것입니다 그리고집에돌아간데도 치위는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집웅◇이라 고는일홍원이고 구멍이만하서 아모리 집부스러기와 누덕이가튼것으로 큰구멍을 틀어막아도 그대로찬바람은 휘휘들어오는쌔문입니다

추위쌔문에 어린소녀의 두손은 성냥파는 조금도맥이 돌지무햇습니다 아아 다만성냥가지가 덥게하야줄뿐이겟습니다 만일 성냥갑에서 성냥가지라도쌔아서 담에그어 불을킬것가트면 그것으로남아 손가락을덥게할수가잇겟지요 소녀는 성냥가지를 한아쌔아 득ㅡ그엇습니다

그러니깐 모든것이 불빗에 환하게 보혓습니다

소녀는 적은두손을 성냥불에 쪼혓습니다 소녀가

◇성냥◇불을 쪼일쌔예는 주석으로장식한 무쇠난로를 쪼이는것갓햇습니다 불길은곱고 싸뜻이더웟습니다

경제회의문제

왜 열엿다 다치엇스며 그효과는 엇더하엿나 【終】

로회한영국인이 그중간에서 서어부의리를수코자 이리커리 돌아다니엇스나 그역시큰수획은업섯습니다 이외가치전쇄와 배상금문케는 본래의논치안키로되고 통화문케도『루스벨트』대통령의태도돌변으로 의논케되지못하고중요한문케로 오즉남다는것은관세뿐이인데 관세문케도한편으로관세인상의 경쟁을중지하자고 관세휴일안을 떠들면서각국에서이핑게커핑게로 관세를삭구인상하며잇습니다 경케회의가열린지근오십일동안 공문서만이 이백만책으로 거긔사용된조히만도

◇팔◇돈에달하나 실속잇는 결의하나못하고 아모효과가 업시 칠월이십칠일에 느르던드되어부긔연긔로 폐회케되얏습니다 아모리무긔라도 연긔인이상 언케쪼열닐는지는 모르지요 그쌔가서는 공문서가멧백만책이나사히고 조히가멧돈이나소비될는지 그것도아지못하는일이지요 공황을물리치고는자본주의각군의 비장코싱로한경케회의는케자신이도리어공황의희생물을 이루엇습니다 각국간의리해대립은 한층더날카러워지는동시 각국마다『싸벳든』의관계도 한층더긴장되야 비인지바람인지 아지못할구름쌍이 세계의상공을뒤덥퍼잇습니다 이다음에는 과연무엇이오려나요?각국에서는룩해군을느리라고한참야단이랍듸다(끗)

오늘의화형 인긔를모으는 김릉자 김소군 의레뷰 그들은장차엇던길노!

◇喜樂座篇(一)

조선에도『레뷰-』가 잇섯는가?

이무름에 대하야 누구든지 대답스럽히 잇섯다든가 업섯다든가를 단언할사람은 업슬것입니다

일반적 사회에대한 시비는 막론하고 조선에 잇서서『레뷰-』다운『레뷰-』가 과거에잇서서 잇지못하엿든것만은 엄밀한사실입니다

그런나 이번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십여년동안을 여려가지 무용(舞踊)과『레뷰-』를전공하여가지고 도라오게된 김소군(金小君)양과김릉자(金綾子)양의 자매는 조선에도 진정한『레뷰-』를 보혀주기위한크다란 포부를가지고 조선으로도라오게되엿습니다

◇십여년◇ 전인일천구백이십사년에경성시내에잇는『조선극장』(朝鮮劇場)이조천(早川)이라는 일본사람의권리아래 잇슬쌔 그사람의 직영이든 련란좌(鈴蘭座)라는 것이 잇섯는데 김소군양은열두살쌔에 김릉자양은 그다음해 열한살노서 이곳에 들어가게되엿는것이 오늘날을일우게 되엿든첫거름이되엿다고합니다

그리하야 그쌔에는『령란좌』가 모다 어린소녀로서 조직된것으로 독창이라든가 동화극(童話劇) 가든것을 하엿술뿐으로 조선에서는 별과 일년동안도 흥행을 하지못하고 곳 만철(滿鐵)

◇남만주◇ 지방의 순회를 웃내고 일본경도(京都)로가서 그곳에서 아조『련란좌』가 상설로 자긔흥행을 하게되엿다합니다

이리하야 한가족갓치 지나는사이에 어린소녀들의 나히도 점점먹어가게되자 연극도 하기시작하고『무용』과『레뷰-』도 무대에올리게되는동시에 당시의 엇더한 사정으로 인하야 단체의 일홈을『에로스좌』라고 곳치게 되엿다합니다

김양자매는 이에서계속하야 무대생활을 계속하는 동시에 처음에는 일본의 무용가의케일인자인 석정행강(石井行康)씨에게서『크렉씩·덴쓰』를 개인교수밧고그후에는 역시일본째쓰게에잇서명성이잇는화히미자(浪花喜美子)씨에게서『짜스·덴쓰』를전공하엿다고합니다

그리고 현금송죽악극부(松竹樂劇部)에잇는 청상긔구자(井上起久子)씨에게서 성악(聲樂)까지

◇공부를◇ 하엿다고합니다 그리하야길본합명회사(吉本合名會社)에 부속인『에로스좌』에서 일천구백이십팔년에 경도에서 흥행하든중 『칼멘』에서 김양자매의 출중한연긔가일반에게 인정을밧게되고 경도를 위시하야 대판(大阪) 명고옥(名古屋) 신호(神戶)등기타일본 관서지방(關西地方)일대를 순회하야 인긔가 상당히 놉하 『에로스좌』라고하면 소군과릉자를 련상할만큼 되여잇다고합니다

그리다가 금번 그곳에서

◇완강히◇ 만류함에도불구하고 조선으로 건너와서 장차로 조선에명실이상부되는 진정한『레뷰』단을 조직하야 아직도 일반의리해가극히 엿튼『레뷰-』를보급하리라는 크다란포부를스스로가지고활동하려고 하는것이라고 합니다그래서우선『무용』과『싸즈쌘쓰』를 조선에도라온기념발표공연을하려고하엿스나여러가지사정으로맛츰조선극장에서흥행중인 희락좌(喜樂座)의 막간시간을 빌어가지고 약간의 『레뷰덴쓰』를발표하게되여 일반의 열렬한 환영을밧고잇든것입니다

엇쨋든 압흐로의 김양자매의 활동이 긔대되는바입니다

(寫眞은무대의김양자매)

아동에게먹일 여름음료수 이러케해서주시오

들이라는 녀일동이 내려쏘이는 녀름의더위에도 지지안코작란치는어린애들을위하야녀름의 음료(飮料)를 만들어주는것도 조흔일입니다 이에그몃가지를 이약이하겟습니다

◇레모네-드◇ 『레몬』하나로서 열사람분이되럽니다 『레몬』를 둘로쪼개여서 그즙을쌔서 차수갈로 하나와 사탕세수갈을 『컵』에 넛코물을두고 어름덩이를한두쏘가집어너코이『레모네-드』에 다가큼의알칼자위를더허서 먹어도조코 놀한자위를더허먹언도조습니다

◇토마토즙◇ 『토마토』를 조와하는애들에게는이이상더업는조흔 자양의음료가업습니다『토마토즙(汁)』를 양사가튼것으로 쏴서역시 차수갈로두세개『컵』에두고사탕을석거 물을붓고 어름을튀워면이면조습니다

◇복숭아즙◇ 복숭아의 씨를 싸고 남비에다가 물과사탕을 넉당히석거두고쓿입니다그리하야 거품이쓰거든 그것을 거더바리고식은다음에 『컵』에삼분의일쯤두고 물을더너흔후 사탕을두고 복숭아의남아지살도 커미여서넛습니다

◇보리차물◇ 보리차에 각사탕을 하나너허서 한번게두어 식하도록에두어번먹어도조습니다

八月十一日 (金曜) (波長四九二米)

◇午前一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〇時五分 雜曲

一、伽倻琴倂唱 가 短歌 나 새타령 다 노래가락

二、伽倻琴과洋琴 가 박아타령 나 靑春歌 다 雨山崔 라 도라지打鈴 伽倻琴 李日善 洋琴 金準業

◇同〇時四〇分 뉴-스

◇同二時 婦人講座 女流創作家에對하야(一) 崔貞熙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

◇同六時 童謠 綠星童謠研究會

◇同六時二五分 라듸오學校 傳說의朝鮮(二) 朴英彬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防疫週間講座(三) 腸窒扶斯에對하야 醫學博士 任明宰

◇同八時 俗謠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小春香歌 四、執杖歌 朴美容 柳開東

◇同八時三〇分 映畫이야기

◇同九時 선야위 黃昏의女子 一、念佛打鈴 二、굿거리 三、선야위 느진중머리 자진중머리 洋琴 海龍九 伽倻琴 梁正云 大笒 李基昌 長鼓 韓成俊 朴康昌 音樂伴奏

◇同九時三〇分 (A) 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第二放送順序

八月十一日 (金曜) (波長 三三三米)

◇明日順序◇

八月十二日 (土曜) (波長四九二米)

▲午前六時 (A)ラヂオ體操 ▲午後零時五分 狂言 ▲同二時 防疫週間講座(三) 赤痢に就て ▲同六時 ハーモニカ獨奏 ▲同六時二十五分 趣味講座 ▲七時三十分 講演 ▲同八時四〇分 (B)大衆物語

▲自午前八時至午後六時 (A)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甲子園球場으로부터中繼—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 料理法 日用品時勢 京城府廳發表 ▲正午 時報 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俗謠 朴山紅 張玉花 ▲同零時四〇分뉴-스 ▲同二時 婦人講座 女流創作家에對하야(二) 崔貞熙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事項(二) 朴致英 ▲同六時 童話 講童이와게 金南洙 ▲同六時二十五分 라듸오學校 傳說의朝鮮(三) 朴英彬 ▲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十分 講演 列國의對支政策 成錦鉉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金錦山 一、唱劇調 沈淸傳 朴綠珠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十分 寸劇 春秋劇團同人 ▲同九時 音律 玄琴 朴鐘九 大笒 金相淳 洋琴 閔完植 琴 金永根 細笛 高載德 ▲同九時三十分(A) 時報 氣象通報 뉴-스 翌日프로그람發表

人形의집을나와서

【一名 노라의後日譚】【71】

一葉 萬植 作 吉鎭燮 畵

재동무(二)

노-라는 찬바람이 쐑돌고 옹산하여보이는 방이나왓나 들어가 옥순이의 입든옷 쓰든물건을 참기면서 곰곰히 생각에 잠기엇다

회장터에서 현순이가 말한것처럼 재환이와 옥순이와는 멀정한 남이다 다만 재환이의민적에 커(妻)라는 명목으로옥순이의 성명삼자가 혓되히 쓰여잇슬뿐이지 그들은 임이 안해가아니요 남편이 아니엇다

그러니까 옥순이는 결혼을하지아니한 녀자라고도 할수잇고 남편을 여흰 과부라고도 할수가잇는것이다

이와가치 남편이 업는사람이니 남편의 압케가 업슬것이요 압케가 업는것은 해방을 의미하는것이다 쌔러서 옥순이는 완전한자유인일것이다

아모 거릿길것도업는 자유로운몸이 무엇에 때기어 자살을 할것인가?

옥순이는 미상불 고독을늑기엇다 그것은 노-라도 동감이엇섯다 둘이다 삼십을바라보는젊은녀자니공규를직히기가외롭지아니할리가업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독속은 아직까지 노-라에게는 써개업는 밥상푼수밧게는아니되엿다 바글바글 쓿는 써개를노코 밥을먹으면 몰론조타 그러나 그것이업다고 밥을 못먹을것은아니다

임이 남이된 남편이라는사람이 공연히 머리채를 쓰들고 발길로 차고 욕을하엿다 응당 분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동리개가 짓느니라 치지도외하든지 그럿치안흐면 이편에서도 그만큼 해갑흐면그만이다

옥순이는 각금 자식이라도 하나잇스면 그것에나 락을붓처 살렌데……하엿다

그러나 노-라의 커지로본다면 그것은 드리어 고통이라고 생각하엿다 몰론 남편에게 소박을 맛고 외롭게지내니 어린아이나 하나잇스면 위로가 되지아니할것이아닐……자살……여기서 무슨결연이 생기어질것가치 뱅뱅돌면서 그러나 역시 아모런 커론도 엇지못하엿다

노-라는 옥순이의 집을더참겨노코 안채로 좀 들어감가하는데 성희가 맛침 어린아이를 안고나왓다

『동생을 일허서 젓젓해떠커세요……그러고 커녁이랑쩍 거식혀겟데……』

그래도 참아 밤에 무서워어쩌케하느냐말은 못한다 노-라는 어린아이를 바더안엇다 송이보담 좀 작고 안나보담은 좀 큰 계집아인데 볼때마다 노-라가 자긔어린아이들을 생각하여 귀여함으로보면 곳잘 쌔르는것이다

심난한중에 그아이를 보니 아이들생각에 더욱심난스러운밤댁구도잘하고십지아니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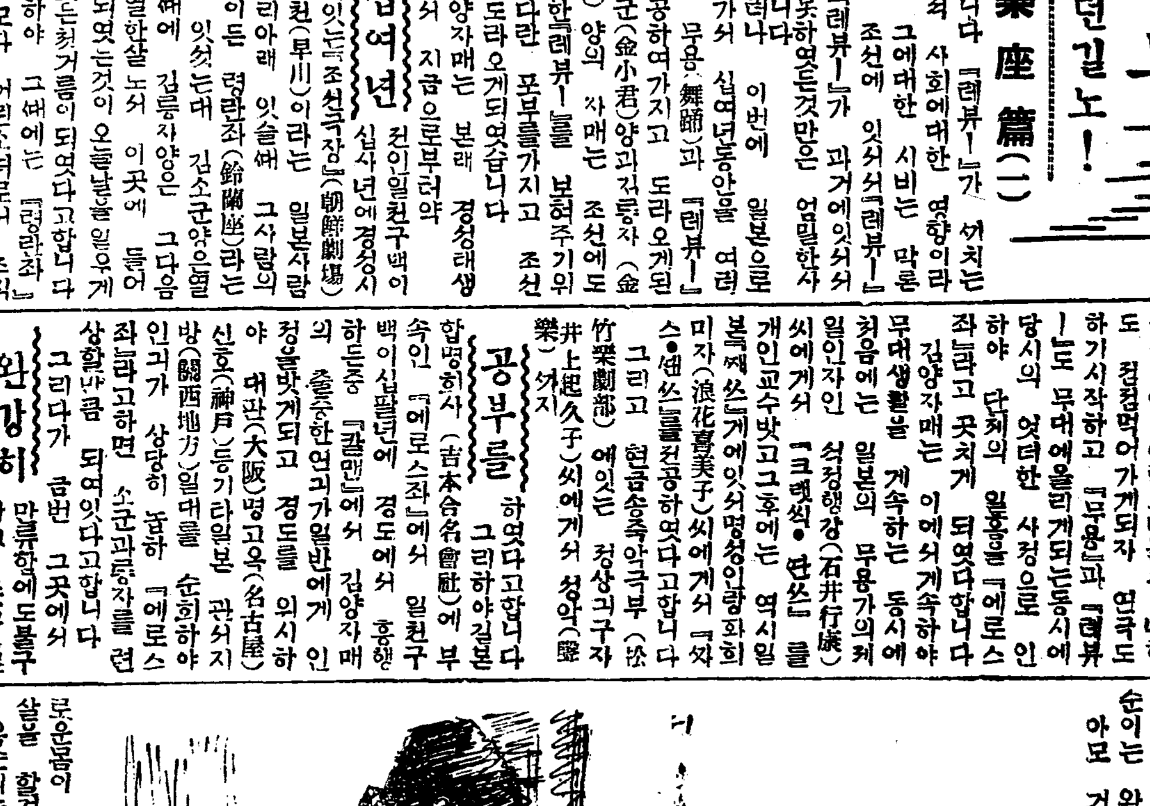
『어쩔수잇나요……커녁에 식모나 좀 내보내 주세요 잠동무나하게……』

『그러케하지요 그거야……아이그불상해! 얌전한이가……

……어쩌면글세 그러케!』

『그러케말이여요』

맛참 학교에갓다가 도라온 성희의아들 용석이가 안에서어머니를 찻다가 달녀와서 치마에 매어달닌다 노-라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쀠지나가것구럼 우둑허니 안거 바라보다가 뛰어나오듯이집을나왓다



乳菓滋養の親玉 松の寶キャラメル

地主會初志不屈 土地使用嚴重拒否
會社側도不得已工事를中止 長津水電問題益尖銳化

【咸興】 긔보=장진강수전용지문제(長津江水電用地問題)에 관한 지주측과회사측의 항쟁은 갈스록 격화되는데 회사측에서 얼마전부터 지주의 승락이업시 지주측 소유토지에 송전주(送電柱)를세우게되여 지주측은물론아니라 일반주민의 생활을위협한다하야 쌍방의대치는 첨예화하야 회사측에서는 할수업시공사를중지하고 지주회에 담판하엿스나 지주회는의연초지를 굽히지안을뿐아니라 전부사개면련합지주회 간부회에 지주들은일체의권리를 위임하고 개인으로회사와 교섭하지안키로하야 더욱단결은 구더진것은바 이에회사측도할수업시 지주회대표 정찬주(鄭贊周)씨와회견하고제일차교섭을개시하게되여지주회에서는 그에관하야곳 집행위원회를열고 그결의에의하야 내용증명으로 좌긔와가튼 토지사용거절장을 회사측에발송하엿다 한다

去四月의貴要求에對한 回答은左와如히本會에서 決議하엿슴으로玆에通知함

記

長津江水電株式會社에서 要求하는 島內里其他本會會員의所有土地의 電氣架設工事使用承諾은 拒絕함

右理由는 水電會社對地主會의水田用地 全體의賣買妥協이圓滿이 成立되지안엇슴에도不拘하고 起工을進行함은區域內住民全體의 生活을威脅할뿐아니라 該使用料外지도不當하다고 認하기때문이다

右決議함

長津郡西四個面地主聯合會執行委員會

小野田세멘트 南朝鮮에進出
第一期五十萬樽生產豫定 ◇工場은不日間着工

【大邱】 산구현(山口縣)에본사를둔 소야전(小野田)「세멘트」회사에서는 삼년전에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에설치 하기위하야 호계면(虎溪面)에서 호서남면(戶西南面)에 이르기까지 약오십만평을 공장지로 매수하엿든바 재계의불황으로인하야 일시중지하고 잇섯는데 최근에이르러 풀인례경긔로 재계에다소활긔를 정한까닭에동사에서는 이삼월안 으로 공사에 착수하야 늣어도 명춘해빙긔에는 조업을개시 하도록할 예정이라하며 우선제일기 로는 삼백만원의자본으로 오십만통을 제조하리라하는바 이로인하야 남조선지방에 다시소야전자본의적극적진출을보게되엿다한다

金州學院 同情素人劇
十五日頃公演

【通川】 강원도통천읍에잇는 무산아동 교육긔관으로 유일무이한 금주학원(金州學院)은 유지곤난으로 동원청년들은 그대책을 강구한결과 동정 소인극(同情素人劇)을 하기로하고 통천예우회(通川藝友會)주최 본보통천지국 후원으로 수일전부터 그준비에분망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동안 김칠성(金七星)군의 지도하에 맹련습을 거듭하야 금월십오일경에는 공연(公演)하게 되리라는바 지방유지들은 뜨거운동정이 잇기를바란다고한다

蹴球聯盟戰 試合中紛糾勃興
結局은警察에서禁止

【沙里院】 사리원체육회주최로지난륙일부터 사리원에서 삼일간 황해도축구련맹전이 열니여 제일일만은 무사히진행되고 제이일되는 지난칠일에 재녕군측에서 심판을불신임한다는 말성을이르키자 대회를 원만히하기위하야 각군대표회를 열고의론하는중 심판삼인이다 사표를제출함으로동대회에서는그사면을수리하고심판을곳처선정하야련맹전을계속하얏다그리자시간이다하야제이일을이로중지하고 각기려관으로 도라갓든바 불신임을바든신심판(申審判)은자긔가 불신임을바들만한 조건이업다하야 그날저녁에 재녕선수들이투숙하는 려관을차저가서 경기규측서를 내여노코 이러니저러니 몃마듸의말을하든중 흥분된선수는 신심판의 면부에손을걸어 따귀를몃번따린일이 잇섯다 이를드른사리원모모는 이를분개히 생각하고 재녕선수를그대로 둘수업다하야 밤구시부터 동십이시가 지나도록 그네들이 들어잇는 려관을 포위하엿다가 경찰의 취지로각각헤여젓다 이를본 경찰은다시 그회를그대로 진행하면 무슨불상사가 잇슬가 념려하야 이를 금지시켯다한다

通行人轢死犯 罰金三百圓言渡
◇大田法院支廳에서

【大田】 지난륙일오후십일시경대전본정(大田本町)에잇는중촌정미소(中村精米所)주인의아들직일(直一)은 자동차운전에 전연경험이업는데 자긔집압헤 정거하야둔 화물자동차를 몰아서가다가 자동차가돌연이 진행하는바람에 동행중의 강도수(姜道洙)는 바로죽고 외한사람은치여 중상을당하야 [illegible] 는바대전법원지청에서 [illegible] 에게 벌금삼백원의 판결언도가 잇섯다고한다

[illegible] 가자면 나고 부락까지하엿스나 돗지안코 혼자고집하여 그와갓치되엿다한다

淸津公設市場 總工費二萬圓

【淸津】 긔보=청진공설시장문제는 부지매수배문에 지연되여오든바 부당국의 로력으로근일완전히 해결되여 총공비이만원으로 삼개시장공사를 일제히 착수한다는데포항동(浦項洞)시장은 현재장소로부터청산동(靑山洞)에가싸운한곳을 선정하여 오백여평의 건물을건설할 예정이며신암동(新岩洞)시장은현장소근방으로되것을 길한편에 이전하고백칠십여평의 건물을 건설하고용지는 권용지와교환하게되엇으며 신흥동신탄(新炭)시장은 심상소학교뒤십자로부근을 고를게하고 삼백여평의 광장주위에계구(劃區)만건축하게된다고한다

保寧郡玉峴里 靑年會組織

【保寧】 충남보령군미산면옥현리(忠南保寧郡嵋山面玉峴里)에서는오래전부터청년단체가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여 오든바 드되어 림건수(任健洙)씨의주선으로 지난칠일조일청년회(朝日靑年會)를창설하게되엿다는데 현재공동작업의목적으로 논 사두락을 공작하고잇스며 장래사업으로 유치원설치와 부인회조직까지 하리라하며 역원씨명은 다음과갓다

▲會長任健洙 ▲理事[illegible] ▲庶務部白南球 ▲體育部白完洙 ▲文藝部趙範九 ▲社交部崔永晃 ▲調査部任鳳宰

水門工事人夫 墜落慘死

【金浦】 지난칠일오전열시경에 김포군양촌면두산리(金浦郡陽村面樓山里)한강치수공사(漢江治水工事)장에서 수문공사에 종사하든 인부한명이 다리아래로떠러저 무참이도 사망하엿다는데 그는충남공주군사현면(公州郡沙峴面)출생인김덕삼(金德三)(三五)이라는바 시체는부근공동묘지에매장하얏다한다

住民이結束하야 借地料減下要求
新興羅津의重大問題

【羅津】 이곳의차지료(借地料)의비싼것은일반이다아는일이어니와 일본인지주보다도 조선인지주가 더비싸게 밧는다고하여 일반차지인의불평과 비난이놉다는바 수일전·영정이정목(榮町二丁目)조선인주민권치는일치결속하여 일본인 소유지인영정일정목에서는일평에십삼전하·데그보다중요치못한이정목에잇서서이십전씩밧는것은부당하다고 지주김모(金某)에게 차지료를감하치아니하면지불을거절한다고통고를하엿다는데문제가문제이만큼 일반은이 지주와차지인의항쟁이 어떠케락착될것일가를 주목하는중이라고한다

興南赤勞組關係 金錫淵長逝

【咸興】 작년오월에 흥남질소공장을 주심으로조직된 적색로동조합이 모종획책을 하다가 미연에 발각된사건의 피의자중 김석연(金錫淵)(三一)은 피검이래 흥남경찰서를거처 함흥형무소미결감에서 일년수개월이란 서월을 병으로신음하다가 지난륙월뉴일에 가출옥이되여 이개월동안 자긔고향에서 신음하든중 작칠월사일에 드디어세상을

羅州支局主催 保健體操開講
지난八月九日부터

【羅州】 본보라주지국에서역세조선의건설을 목표로 경성에서 사범장권(張權)씨를 초빙하여 보건체조강습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루차 보도하엿거니와 예정과가티 지난구일부터 하로두번식 개강하엿는바 참가인원이 삼십여명에달하는 성황이라한다

長淵夏期校主催 童話大會盛況

【長淵】 장연읍하긔학교주최

… 청중이 륙백여나되여 대성황을 일우엇섯는데 일등은 연사중에 제일년소한 지금용(池金溶)양이 당선되엿는바 입상자의 동화문제와씨명은 다음과 갓다한다

▲一等 童心의失敗 池金溶 ▲二等 八角黃 黃德鎬 ▲三等 復 孔少女 ▲四等 可憐한母女 金義順 ▲五等 父母의命令 朴淑潔

留學生會主催의 庭、蹴球戰禁止
理由는新聞支局後援等等 昌寧警察의怪處事

【昌寧】 창녕재외류학생학우회에서는 지난삼십일에 총회를열고 금년하긔사업으로 한술강연회축구,정구대회를개최하기로하고 먼저축구,정구대회만을 오는이십일에 개최하기로 하엿든바 처음에는 경찰이대회개최를 허가하엿슴으로 주최측에서는 본보지국후원으로 준비를진행하든중 지난오일에 경찰은돌연히 이대회를 금지하엿다는데 그리유로는

一、新聞支局의後援을엇은것

二、費用金을寄附的으로蒐集한것

三、當地中樞員金某의反對하는것

등이라는데 경찰이 처음에허가햇든것을 돌연금지함은 실로알수업는처치이라하며 또한 지방하부현으로 중추원참의김모(中樞院參議金某)의 반대하는그 진의를 알수업다하야 일반의비난이만타한다

會坪面松山里서 『백중』廢止

【淸安】 충북괴산군(槐山郡)내에서 모범부락으로 이름놉흔 증평면송산리(曾坪面松山里)에서는 지난륙일밤에 동회를개최하고 조선에서고래로부터 깁히 박혀온 소위조선농민들의 명절이라할만한 백중폐지를 결의하엿다고하는데 그것이 과연실시될것인가 못될것인가에 일반식자계급에서는 흥미잇게 주시하고잇다하며 그백중폐지 리유에 잇서서는 일군들이 돈이생기면 도박을한다든가 또는 술을먹고 주정을한다든가 하는이런 폐단이잇슴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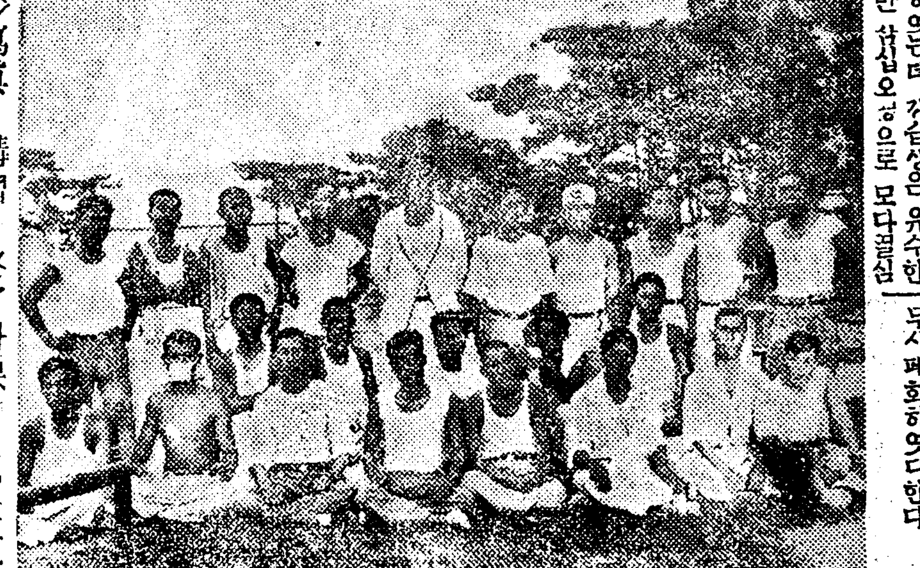
期間을延長 盛況으로完了
本社蔚山支局主催의 ◇保健體操講習會

【蔚山】 경남울산에서는본보울산지국주최와 울산 체육협회후원으로경성에서사계의권문가리상민(李商敏)씨를 초빙하야보건 체조강습회(保健體操講習會)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예정보다이일을 련긔하야 지난사일부터 칠일까지사일간 매일오전오후이회로 강습을진행하엿는데 강습생은 유수한청년만 삼십오명으로 모다열심으로 강습을계속하는일방 일흔아침과 오후의염열하에 렬을지어 용감스럽게 구보로시내를 일주한것은일대센세슌을일르켯스며 강습을마친후에는 이것을오래지속하며 넓니 보급하기위하야 보건체조반을 조직한바반장에 김봉한(金鳳翰) 부회장에 김종근(金鍾根)량씨를선거한후 무사페회하엿다한다

燒酒共販組合 理事選定
八日創總에서

【平壤】 소주공동판매조합창립총회는팔일읍취각(挹翠閣)에서 개최되여 리사선정을한후 동일 오후십시경에 폐회하엿다는데 당일출석한업자는 삼십이명으로 반대자도상당하엿스나 만흔모양이다 당일선거된 각지리사는 다음과갓다고한다

▲平壤 鮮于仁汝 江崎萬八 ▲鎭南浦 洪錫祐 ▲孟山 趙元祚 ▲順川 崔東森 小澤豐一郞 ▲价川 金景義 ▲成川 金元濟 ▲中和 宋顯燮 作山篠吉 ▲江東 朴見龍 增田傳六 ▲龍岡 盧一衡 ▲陽德 盧正守 ▲江西 許億 林用濟 ▲大同 金鵬七 ▲平原 金榮洙 田中茂太郞 ▲德川 金泳甫 ▲寧遠 金鳳俊



◇寫眞…講習을終了하保健體操生一同

出漁은漁夫 遭難溺死
長淵近海에서

【長淵】 지난칠일새벽까지장연군후남면도지리(長淵郡候南面道知里)근처 해안에서고기잡이하든어부하응련(河應連)(四九)은 동무어부들이 귀가하는데도 돌고하고 혼자서 고기잡이를계속하다가 해암이가에여서 동서지척을분간치못하여 심히 고생을하다가 결국 무참히도빠저죽엇다는데 그시체는 발열시경에 조수에밀녀 동후남면남호시(候南面湖市)해변에밀녀와 떠오른것을 부근사람들이 발견하고 건지엇다는데 싸시기권에 동모

暴風雨慘害續報

市街가變해河川 水聲만悽凉할뿐
五十年來初有洪水를지낸 上村市街의今昔感

【永同】 영동군산촌면(山村面)일대의금번수해는 오십년래초유의 참상을이루엇다는데 도로와유실과 교량제방등의 손실은물론 상촌보교(上村普校)부근의제방이 터저서림산시가(林山市街)는전부침수된중황간(黃澗)천상류가범람하야 가옥이도괴되여 일시는 수국화되엿스며 더욱이궁촌리(弓村里)시가통일대는전일에 사람이살며 우마가빈번히 래왕하든자최는 형적도업고지금은 내물무변하야 급한 물소리만 첨랑이들인다하며 그동리 리재민들은 살든집과가산을탁류에씻긴 면내유지의 동정을바터 조석지을기구를 준비하야겨우 남의겻방과 허청등을빌여거처는하나 우선식량이 업서 긔아선에서방황한다는바압흐로 륙십여일이나남은추수까지삼십호가족의생로가묘연하다하며 그외에도금번수재로인하야살길이묘연한사람이다수에달한다는바 이제가장 우심한상촌 대곡양면의 수해상황을 상세조사한바에의하면 다음과갓다한다

面名	死傷者	流失家屋	破壞家屋	半壞家屋	浸水家屋	救助를要하는戶數	家畜流失
上村面	四名	三五戶	一五戶	二四戶	三七戶	[illegible]	四三
梅谷面			二戶	八戶	六戶	一〇戶	

面名	畓 流失	畓 埋沒	畓 浸水	畓 作物被害高	田 流失	田 埋沒	田 浸水	田 作物被害
上村面	九、八反	三、三反	六反	一四〇〇圓	六、四反	三、六反	—	[illegible]
梅谷面	五、三反	八、五反	二〇、四反	六四〇〇圓	一、八反	三、五反	五、三反	七〇〇圓

道路及橋梁堤防損失

面名	道路	橋梁	堤防
上村面	一二〇〇間	七個所	一八〇間
梅谷面	一一八〇間	三個所	一〇〇〇間

同情金遝至

【永同】 도상촌면일대의 비참한상태에 싸저잇는이재민들이 긔아선상에서 방황하는 참상을본 궁촌리(弓村里)에서 황학금광(黃鶴金鑛)을 소유하고잇는 고산효우(高山孝友)씨는 금번수해에이만여길의

山南一帶

【兩讀】 지난이일밤부터 [illegible]

沙汰에밀려 老弱二名壓死
永同郡大海里의慘事

【永同】 금번폭풍우로인하야 상촌면일대의 수해는 말할수업는참상을 일두어 상류지방은교통이두절되여 어떠한상태에 잇는지 알길이묘연하든바 지난륙일에야 완전히단니게되야 각지에수해를 조사하든중 동면대해리(大海里)에 사는고남석(高南石)(九)이라는 소년과정순수(鄭順水)(六六)노인은 단잠을자다가 불시에제방이 터저물결이 일시에닥처옴으로 그들은 뒤문을박차고 탁류를피하야 나가다가 뒤에산이문어저서 참사하엿다는데 그리김상회의 시체는 그곳서륙십리나되는 하류인 황간면죽전리(竹田里) 부근에서 차젓다한다

손실을 당하엿슴에도 불구하고 자긔의 사무소로피하야온 동민들을 자긔부수용하야 자긔가 준비하엿든 식량으로 조석밥을지어주고 더욱이현금오십원을 동정하엿다하며 그외에도 참상을들은리근유지들은 다음과가티 동정금을보내엿다한다

▲金十四圓 高津新 ▲金十五圓 淺藤末吉 ▲金十圓 南能祐 ▲金一圓 中島豐次 ▲大麥二石 上村面弓村里 朴相勵

流失家屋五戶 全、半壞卅餘戶
其他田畓埋沒堤防崩潰等 一部損害額五十餘萬圓

【伐蘭】 금번폭풍우와해일로생긴 피해가 전남벌교에도적지안어 팔일까지 조사된것이 오십삼만팔천여가량이요 아직조사안된것도적지안타는데 장좌(長佐)대포(大浦) 두동리만하여도 다음과갓다한다

流失家屋五戶 全壞家屋七戶 半壞家屋二十五戶 浸水家屋二百九十九戶 埋沒畓八十五反步 半埋沒畓 一町三反步 浸水畓二百町步 堤防全壞五百七十間 堤防半壞三千五百間

榮州에서 靑年一名溺死

【榮州】 경북영주군 이산면조암리 하류동면 용상리유종이(同面龍上里)劉出伊(元란 청년한명이 빠저죽엇는데 원인은 례천군감천면 벌방리(醴泉郡甘泉面伐芳里)에 잇는 그의아버지에게 식량(食糧)을가지고가다가 김호를에서 건너가지 못하고빠저죽은 것을 오후 일곱시경에야 시체만은건지엇다한다

健物 二一九二圓

漁船 九一五圓

農作物 五七九六七圓

末輝里、內金剛間 電車運轉不能
一、四키로「메돌」을徒步聯絡 線路復舊는半個月後

【鐵原】 금번호우로말미암아 금강산전긔철도(金剛山電氣鐵道)도말휘리 내금강사이 (末輝里—內金剛間)에이르기까지 철도가 류실되여 내금강행전차는말휘리까지만 운전하고 철도가류실된 사이는 도보로련락을 취한다하며 수하물한개에 대하야는 특별운임으로 팔전식밧는다는데 내금강려객에 이가튼불편안컴이 잇슴으로 다만지원자에게한하야 표를 팔고 잇다하며 공사지에서는 인부가 부족함으로 지난칠일오후세시경에동철원(東鐵原)역에서인부백오십명을 모집하야 보내달라는 긔보가도착되여 동철원역에서는 삼십시간에예정이상의 인부를 모집하야 팔일오전 아홉시반차로 수송하엿스며 공사는 일주간전후에는 완성되기 어려운 형편임으로내금강 운전까지는 반개월후이라한다

熊川一帶

【鎭海】 지난삼일의폭풍우로인하야 진해에서어부(漁夫)사이행방불명이되얏다 함은 긔보와갓거니와 이행방 불명자 중진해읍장천리(鎭海邑將川里) 김임상(金任祥)은폭풍중에서천신만고로 겨우창원귀산면(昌原龜山面)해안에밀니여 살아오게되얏스나 남은삼인은 무참히도 돌아오지못할수중고혼이되야지난칠일까지시체(屍體)를건지게되야경화동(慶和洞) 공동묘지(共同墓地)에가매장을하게되얏다한다

面民一致하야

【鎭海】 지난삼일폭풍우에인한피해에대하야웅천(熊川)방면에대한피해는금일까지조사한상보에의하면가옥(家屋)도괴 선박(船舶)파손 농작물(農作物)이 실로막대한모양인데 그자세한손해는다음과갓다한다

家屋全潰二十七戶,半潰二十五戶 浸水七戶 土地浸水流失一町五反 船舶破損流失十三隻 道路破潰 五九二間其他流失漁具多數

淮陽一帶

【內金剛】 강원도회양군장양면(淮陽郡長楊面)일대에 지난사일의 폭풍우로 인한손해는 대략다음과갓다한다

一、罹災民

溺死及行方不明 男五人女四人計九人

要救濟人口 一六七戶 人口男一〇六人女九七人 計二〇三人

二、家屋

流失	全潰	半潰	床上	床下
四〇	九	一三	四三	六二

被害見積 一六七 四、五〇〇圓

三、土地

地目	流失	埋沒	浸水	作物被害
畓	一七町	谷町	吉町	七、三〇〇圓
田	三	三	二一	二、一四五

四、道路

個所	破損	埋沒	被害見積
個	間	間	圓
六	一、九〇〇	三、五六八	三四、四〇〇

五、橋梁

個所	流失(橋)	破損(暗渠)	被害見積
六個	三個	五六個	四六、八〇〇圓

六、堤防及山崩

破損	決潰	被害見積
三〇〇間	五〇〇間	一、〇〇〇圓

山嶽崩壞 五三個所 被害見積 一、〇〇〇圓

七、電線線路

個所	距離	被害見積
一	三五〇米	二、八〇〇圓

水害同情金募集
平北新市地方에서

【新市】 남조선지방에서금년수세차례나 형용키 어려운수재를당하여 먹을것이업고 닙을것이업서서 방황한다함은 루차신문지상을통하여 아는바 어니와 이와가튼 비참참절한 홍보를접한평북신시 지방에서는 면장이하 지방유력자측의발긔로 동정금을모집하게되엿는데지난칠일부터 사긔면 사무소에서 극력모집중이라는데 촌농가에서도 이소식을듯고 구제금을 앗기지안어 동정금을 속속납부중이라한다

咸陽 南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九、二十兩日間
△場所 上林球場及普校코-트
◇主催 咸陽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咸陽支局

開城 通俗學術講演會

▲時日 自八月十三日午後八時半
▲場所 高麗靑年會館
▲演師 林漢璟 崔奎淞 具滋均
◇主催 在京松京學友會
◇後援 高麗靑年會東亞中央朝鮮三支局

黑橋 西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六兩日間
△場所 黑橋公普校運動場
◇主催 黑橋勸陶靑年會
◇後援 黑橋有志者一同朝鮮日報社黑橋支局

宣川 保健體育講習會

△時日 八月十四日—十七日
△場所 保聖女學校講堂
◇主催 宣川基督靑夏令會
◇後援 朝鮮日報社宣川支局

廣州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九月四日出發 九月八日歸還
△會費 拾參圓也(食代並)
△申込期日 八月二十五日限
◇主催 朝鮮日報社廣州支局
◇後援 京元線往十里驛

史話 雲峴宮의봄 53
琴童 作 芝山 畫

八의二

이 사멸의도시(死滅都市)한양은 본시 고구려때에는 북한산군(北漢山郡)이엇다 신라경덕왕(景德王)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양이라는 이름을부치엇다 고려초에는 다시 이름을 양주(楊州)라고지엇다가 고려 문종때에 남경(南京)으로 하고 목멱산에 궁궐까지 짓게하고 충렬왕때에 또다시 이름을한양이라 정한것이다 중 도선(道詵)의 예언에 「장차 리씨가왕이 되고도읍을 한양에 정하리」 하는 말이 잇섯슴으로 고려대의 남군은 이것을 몹시꺼리어서 고려 숙종때에윤권등을 보내서 자세히 한양의 지세를 탐사시켯다 그결과에 의지하여 三각산이남으로 버터 나려온 만경대의한 줄기 백악(白岳)이 도선의비긔(秘記)의 말한바 그곳이라하여 이곳에다가 오얏 나무(李木)을 만히 심으고 리씨 청 가진 사람을 남경부윤으로 보내고 숙종왕은 매해한번씩 남경부에 순행하며 남경부에 심은 오얏나무가 무성하면 잘라버리고 무성하면 잘라버리고 하여 이한양주의왕긔(王氣)를 석기에 노력하엿다

리씨조선의 태조 리성계 처음에는 고려의 궁궐인 수창궁에 즉위하섯지만 고려의구도에는 그냥 고려왕조에 마음두는 구신들이 만흐므로도읍을 옴기기로 작정하고 그후보지로서 처음은 계룡산을 택하고 긔공까지하엿다가 계룡산은 그지형이 좁고 토지가 더럽고 교통이 불편하고 물길이 멀어서 못쓴다는 류근(柳觀)등의 의견을 조차서 한양으로 도읍을 옴기기로하엿다

도읍을 한양으로 옴김에 임하여 태조에서는 정도전(鄭道傳)등에게 명하시어 조흔자리를 잡아서 대궐을 짓게하엿다 三각산이 흘러서 백악이된 그 아레 누피 三十척의 돌담에 둘린 웅더한 궁궐—

旣醉以酒
旣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이라는 글에서 떠내인 경복궁이 이것이엇다

연침(燕寢)은 강녕전(康寧殿)이라 명명하고 동소침(東小寢)은 연생전(延生殿)서소침(西小寢)은 경성전(慶成殿)이오 연침의 남쪽에는 사정전(思政殿)이오 그아페는 근정전(勤政殿)이오 근정문이 근정전의 정면을 장식하고 륭문루(隆文樓)와 륭무루(隆武樓)의 두문이동서에 잇고 동남서북의 큰문은 동을 건춘(建春)서를 영추(迎秋) 남을 광화(光化)북을 신무(神武)라 하고 각문에는 루각이 잇서서 그위엄을 자랑하여 「五보에 一루(樓)요 十보에 一각(閣)이라」 는아방궁은 따르지못하지만 이三천리의 통수자의 궁궐로서 그다지 부끄럽지 업도록 찬란하게 되엿다 그러나 이 리씨조선의 창업을 자랑하는 찬란한 궁궐도 임진 왜란때에 그만 불을 이르켜서 거진 타버렷다 그뒤에 중수는 하엿시만 그뒤부터는 려대의 상감은 혹은 창덕궁이나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에 긔거를 하시고 경복궁은 뷔인 궁으로 지낫다 五색이 령롱한 단청은모다 벗고 찬란히 빗나든 청기와도 여기저기 모다 버서저서 비가 새이고 련못에는 물이 마르고 그대신 갈이무성하여 한때 찬란하든 그궁궐도 인제는 한낫 페허로화하엿다

『사멸의도시』한양부는 이쓸쓸히 가는 고궁때문에 더욱 쓸쓸히 보엿다 여기저기 무너진 돌담들으로는 월러내린 연(鳶)을 잡으려 드나드는소년의무리까지 잇섯다

봄—。이 도시를 둘러싼 고나즌 뫼에는 봄의다스름이 차저 왓지만 사멸의 도시와 페허에 가까운 고궁에는 봄의 그림자도 비최이지 안헛다 그것은 쓸쓸키 짝이 업는 『청숙의 도시』엇다 외국인이 명명한바 「은사국인(隱士國人)」의 생활과 어울는외로운 거리엇다